

# BCWW 2018를 밝힌, 뉴미디어 콘텐츠상 시상식과 〈배드파파〉 제작설명회

## 미디어 중심 이동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글 이민우 | 객원기자 | news@newspeak.kr | 사진 문경록 사진기자

미디어의 무게중심은 예전과 같지 않다. 마니아층의 전유물 정도로 취급되던 인터넷 방송 문화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 일부 TV 프로그램을 통해 ‘모사’되는 단계를 지나 이제는 직접 기존 미디어의 영역에 중첩되기 시작했다. 대도서관, 밴즈와 같은 유명 1인 크리에이터들이 지상파 TV에 출연하고, 역으로 TV 방송인들도 하나들 자기만의 개인방송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는 기존 방송사들에게서 보기 힘들었던 열린 자세와 실험적 태도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제작자들을 유인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뉴미디어 환경에 어울리는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 방송영상 국제시장인 ‘국제방송영상마켓(BCWW) 2018’ 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한 ‘2018 뉴미디어 콘텐츠(NewCon)상’ 시상식이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뉴미디어 콘텐츠상(이하 뉴콘·NewCon)’은 새로운 형식의 웹·모바일·OTT 등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와 크리에이터 발굴 육성을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영덕 부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장경근 과장, 조영신 심사위원장(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뉴미디어콘텐츠가 기존 콘텐츠들과 비교해 가지는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개인의 역량이 콘텐츠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이

고 진취적인 창작자들의 시장 진입을 돕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 과장은 “웹콘텐츠를 차세대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콘텐츠가 유통 소비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들이 새로운 생태계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처음 열린 ‘뉴콘’ 공모에는 총 120편에 작품이 응모돼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뉴미디어 산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뉴콘’은 작품상(드라마, 예능, 다큐·교양) 3개 부문 중 대상 1편과 각 부문별 우수상 3편, 특별상(미디어사업자, 크리에이터) 2개 부문 등 총 5개 부문에서 여섯 작품을 선정했다.

김영덕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제1회 BCWW 뉴콘 개막식과 시상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올해는 BCWW의 연계 행사라는 소박한 출발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는 뉴콘이 BCWW처럼 하나의 글로벌 마켓으로 우뚝 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영신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을 통해 “MCN(멀티채널네트워크, Multi Channel Network)이나 모바일 콘텐츠가 등장하고 소비된 지 몇 년이 지났다”면서 “이번 시상은 드디어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들도 이 사업과 영역을 대세라고 인정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뉴콘상이 지닌 가치를 강조했다.

영예의 대상은 청춘남녀들의 연애 이야기를 감성적인 색채로 담아낸 주식회사 리코(LICO)의 연



BCWW 2018 뉴미디어 콘텐츠상 수상자들과 김영덕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좌측부터 조영신 심사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장경근 과장, 앙투안 나자렛 데일리모션 아시아 총괄 부사장, 셀린 시 알리바비그룹 알리스포츠 부총재.

재형 웹애니메이션 〈연애 하루 전〉이 수상했다. 〈연애 하루 전〉은 네이버웹툰 앱 내 PLAY채널과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누적 조회수 총 5,600만을 기록한 히트작이다. 주식회사 리코의 황보상우 대표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생긴 지 1년 밖에 안 된 회사가 모바일에서 연재형 웹애니를 시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 드라마 부문은 와이낫미디어의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 시즌2〉, 예능 부문은 JTBC 디지털 채널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와썹맨〉, 다큐교양 부문은 헤럴드 인스파이어의 〈실폐해도 괜찮아〉가 수상했다. 국내 뉴미디어 산업 발전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특별상의 크리에이터 부문은 원밀리언 댄스스튜디오(1MILLION Dance Studio), 미디어사업자 부문은 주식회사 칠십이초가 수상했다.

**기조강연:**

**새 시대 콘텐츠 유통혁신과 소비의 진화**

프랑스의 앙투안 나자렛(Antoine Nazaret) 데일리모션 아시아 총괄 부사장, 중국의 셸린 시(Celine Shi) 알리바바그룹 알리스포츠 부총재는 이날 'BCWW New Content, New Stream' 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을 통해 콘텐츠 혁신이 현세대의 소비경향에 가져온 변화를 이야기했다.

앙투안 나자렛 부사장은 'OTT, 플랫폼의 혁신적 변화'라는 기조강연에서 "이제는 콘텐츠 유통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콘텐츠 제작비용도 많이 줄었다. 지금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시대"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구도는 유저가 특정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나자렛 부사장은 새로운 영상 콘텐츠 유통체계가 가져온 변화에 발맞춰 업계가 지녀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비디오의 수는 30억 개나 된다. 정보의 양이 엄청난 상황이다. 모바일 기기로 하루 300개 이상의 콘텐츠를 주고받아도 그 비용은 제로"라면서 "공동의 책임으로 다양성을 유지하며,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셸린 시 알리바바그룹 알리스포츠 부총재는 '밀레니엄 세대와 온라인 스포츠의 상호 작용'이란 기조강연에서 뉴미디어 세대의 스포츠 콘텐츠 소비경향을 논했다. 그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소비자들의 요청·행동 등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면 스포츠를 편리하게 보고 즐기며, 구매하고 훈련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중국 시장에는 이런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앱들이 많이 개발돼 있다. 온라인 스포츠 서비스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온라인스포츠 시장에서는 젊은 소비자층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19~30세 정도가 소비자의 23%를 차지한다. 그래서 젊은 소비자층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다. 올해 'WESG(World Electronic Sports Games)'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한국에서도 파트너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월화드라마 <배드파파> 작품설명회가 개최됐다. <배드파파>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나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한 어리석은 가정의 처절한 분투를 그려낸 드라마다. 이날 행사에는 <역적>, <투깝스> 등을 연출한 진창규 감독과 배우 장혁(주인공 유지철 역)이 참석해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주인공 유지철은 몰락한 중년 가정이다. 20대 시절엔 돌주먹 복싱 챔피언으로 '국민 영웅' 대접을 받았다. 복싱 뿐 아니라 사랑도 최고의 인파이터였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최선주(손여은 분)에게 반해 3일 만에 청혼했고, 예쁜 딸(영선, 신은수 분)도 낳았다. 하지만 세기의 대결로 주목받던 방어전에

서 승부조작의 유혹에 빠진 뒤 몰락하고 만다. 온 세상이 그를 비난했고 한 순간에 돈과 명예를 잃었다. 가정의 행복까지 사그라졌다.

40대 초반이 된 지철은 강력반 형사로 먹고 산다. 의욕도 없이 요령만 부린다. 가정에서도 이미 가정의 권위는 사라졌다. 그렇게 무능력한 남편이자 아빠인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친다. 도박장 업주에게 뇌물을 받아먹는 경찰로 몰려 6개월 징역 징계를 당하고 만 것이다. 더구나 딸이 사고를 쳐 거액의 합의금까지 마련해야 할 상황에 내몰렸다. 결국 유지철은 파이터가 돼 '위험한 싸움'을 하기로 결심한다. 복싱 챔피언 경험을 살려 불법 격투 시합



에 참가한 불량 아빠의 이야기는 이렇게 펼쳐진다.

**“중년 남자의 판타지 그리는 드라마”**

연출을 맡은 진창규 감독은 “처음에 배드파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마음에 와 닿는 장면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느꼈다”면서 “이 드라마는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면서 중년 남자의 판타지를 그리는 드라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리려고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장혁은 “작품 속 유지철이란 캐릭터와 나이가 같다”면서 “40대 초반이고 일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혁은 또한 “유지철은 가정의 화목함을 꿈꾸지만 반대로 건조함도 있고, 무언가 현실을 극복하고 싶은 남자”라면서 ‘몰락한 챔피언’라는 설정에 대해 “복싱으로 맘 홀리던 남자가 맘을 홀리지 않았을 때의 쓸쓸함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배드파파>는 콘진원이 주최한 ‘2015년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수상작이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은 좋은 이야기를 발굴해 영화, 드라마, 연극,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로 성과를 만들어 냈다. <배드파파>는 MBC에서 10월 1일부터 매주 월, 화 오후 10시에 방영되며 총 32부작으로 구성됐다. 장혁을 비롯해 손여은, 신은수, 하준, 김재경, 주진도 등이 출연한다. ㉞